

2017 제5회 행정사 시험 - 행정법 총평

- 종로박문각 행정고시학원 김형섭

2017년 제5회 시험은 이전의 과목당 20문제와 달리 25문제로 치러졌는데, 출제가 특히 증가된 영역은 행정작용법(11문제)과 행정조직법(4문제)이었다. 그리고 출제형식에 있어 사례형이라 할 수 있는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는데, 사례형은 통상 법령과 이론 및 판례를 모두 종합하여 지문을 구성하므로 수험생은 이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기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몇 문제는 어려운 판례가 정답으로 되어 있는 등 까다로웠지만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수준이어서 성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행정법으로 인해 불합격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본다. 2018년 시험에 있어서도 이러한 출제경향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올해의 출제문제를 각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편 행정법총론** : 통상 2문제 정도가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행정상 법률관계(공법관계 - 사법관계의 구분)를 묻는 1문제만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향후 시험에서는 2-3문제 정도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2편 행정작용법** :

- 행정입법 부분은 예년과 달리 3문제나 출제되었는데, 출제문항이 25문항으로 늘면서 향후 1-2문제는 꾸준히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가장 출제비중이 큰 행정행위 부분은 4문제가 출제되어 예년과 비슷하였다. 한편 행정지도와 관련된 문제가 준사례형으로 1문제 출제되었는바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준사례형 문제는 앞으로 1문제 정도는 꾸준히 출제될 것으로 본다.

- 행정절차 부분은 예외 없이 매 시험마다 출제되어 왔는데 올해에도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묻는 1문제가 출제되었다. 단순히 법조문의 내용을 묻는 것이었고 판례를 연관시키지 않은 쉬운 문제였다. 그리고 정보공개 부분은 통상 1문제가 출제되어 왔으나 올해는 2문제나 출제되었으며, 특히 이화여자대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던 정유라를 연상케 하는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는바 법률조문의 내용과 관련판례를 모두 이해하여야 풀 수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였다.

*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통상 1문제가 출제되어 왔는데 올해에는 대집행과 여러 가지 실효성 확보수단을 묶어서 출제한 2문제가 출제되었다. 출제문항이 25문항으로 증가됨에 따라 향후 꾸준히 2문제 정도가 출제될 것으로 본다.

* **제4편 행정구제법** : 특이하게 이번 시험에서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부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부분은 중요한 영역이므로 향후 각 1문제씩 출제될 것으로 보고 대비하여야 한다. 행정쟁송 부분에서는 행정심판 2문제와 행정소송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전의 시험에서는 행정심판 부분이 거의 출제되지 않다가 이번 시험에서는 2문제나 출제된 것이 특징이다. 향후에도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부분은 꾸준히 3-4문제 정도가 출제될 것으로 본다.

* **제5편 행정조직법** : 통상 2-3문제가 출제되어 왔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4문제(행정조직법 일반 2문제, 지방자치법 1문제, 공무원법 1문제)나 출제되었으며 그 중 3문제는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었다.

*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 통상 2-3문제가 출제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경찰행정과 공물,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3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다.